

산지쌀값 소폭 상승...연말 쌀값은

올해 벼 매입량 1.4% 감소...공급 감소보다 수요 감소 커 반등
농가 재고 늘고 RPC 재고 줄어...KREI, 연말엔 약보합세 전망

산지쌀값이 11월 중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쌀값은 통상적으로 10월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면 하락하지만, 공급량 감소분보다도 수요량 감소분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3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산지쌀값은 11월 25일 기준 가마니(80kg) 당 22만 818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 높았다.

올해는 수확기에도 평년보다 높은 산지쌀값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수확기가 한창인 지난 10월 5일에는 20kg 당 6만 1988원으로 전년 동기(4만 7039원)보다 31.8% 높았다. 한 가마니 기준으로는 1년 새 6만원가량 상승한 수준했다. 산지쌀값이 20kg 당 6만원 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7년 4월 국가데이터처가 관련 통계를 개편한 이후 처음이다.

올 수확기에는 높은 산지쌀값에도 통상적인 흐름에 따라 산지쌀값 하락세가 지속돼왔다. 10월 5일 정점을 찍은 뒤 10월 15일(20kg·5만 8258

원), 10월 25일(5만 7403원)을 기록했고, 11월 들어서도 5일(5만 6954원)으로 하락 추세가 계속됐다.

하지만 수확기 막바지에 이른 지금은 산지쌀값이 소폭 반등하고 있다. 지난 15일 20kg 당 5만 6998원으로 전 회차 대비 0.1% 오른 데 이어 25일에도 0.1% 상승한 5만 6998원을 기록했다.

산지쌀값이 11월 말까지 하락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는 공급량 및 수요량 감소가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을 353만 9000 t으로 확정지었다. 전년 대비 1.3% 줄어든 생산량이지만 예상 소비량인 340만 9000 t 보다

는 13만여 t 초과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열린 ‘쌀 수확기 대책’에서 과잉생산량을 16만 5000 t 수준으로 예측하고, 10만 t 을 시장격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시장에 3만 t 가량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산지 벼 매입량 감소폭은 더 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가 발표한 ‘농업관측 쌀 12월호’에 따르면 올해산 벼 매입량은 지난 20일 기준 181만 7000 t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정부 매입량이 6.5% 줄었고, 민간 마곡종합처리장(RPC)에서 10.1% 감소했다. 농협RPC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매입 계획량의 85% 수준에 그쳤다.

더불어 벼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농가 재고량이 늘고, 산지 유통업체 재고량은 감소했다. 지난 10일 기준 구곡(2024년산)은 7000 t으로 전년 대비 4만 6000 t 줄었고, 신곡(2025년산)도 11만 5000 t 감소했다. 해당 물량만큼 시장에 쌀이 풀리지 않으면서 수확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산지쌀값이 소폭 반등했다는 것이 KREI 측의 설명이다.

현재 산지쌀값이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12월 중에는 전반적인 수급 상황이 안정돼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곡을 추가 매입하거나, 농가 보유 재고가 시장에 풀리게 되면 향후 가격 변동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겨울 초록 선사하던 미나리짱 사라졌어도

무논 대량생산 최적지...재배방식 변경 습지 개발로 줄어

40대 이상이라면 미나리짱(미라니짱)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황량한 겨울 들녘에 초록을 선사하던 논이나, 담가둔 물이 얼어 얼음을 지치는 동네 놀이터(아이스링크)로 변신했던 장소로 말이다.

미나리짱은 미나리를 심은 논이다. 땅이 걸고 물이 괴거나 흐르는 곳에 만든다. 큰 하천이 흐르고 하천을 따라 미나리를 재배하는 미나리짱이 펼쳐져 있다. 미나리 덕분에 동네는 겨울에도 초록빛이었다. 가을걷이가 끝나고 곧바로 종자를 얼어 가졌으니 보리와 자라는 시기가 겹치지만, 조금 육식을 부리면 벼 보리 혹은 미나리 순으로 경작할 수 있어 논의 활용 면에서 최상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미나리는 축축한 땅이나 물속에서 자라는 산형과 미나리 속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대만, 일본, 자바, 인도 및 아시아 대륙에 전체에 걸쳐 널리 분포하며 세계적으로 40여 종이 있다. 키는 30~60cm 정도 자라고 잎은 어긋나며 깃꼴겹잎이고 개개 잎은 알 모양에 톱니가 있다. 여름철 복산형 꽃차례에 희고 작은 꽃이 핀다. 잎과 줄기에 독특한 향이 나며 찌꺼기에 넣거나 삶거나 데쳐서 나물로 먹는다. 8~9월 무렵에 10cm 정도로 밑동을 자른 미나리 줄기를 무논에 뿌려 11월중 1차 베어낸 뒤 12월에 비닐을 씌워 다시 키워서 50cm 정도 자라는 1월부터 수확에 들어가고 3~5월 제철을 맞는다.

미나리와 관련 오래된 기록으로는 ‘시경’ 반수(泮水) 편에 ‘사락반수 박제기근(思樂泮水薄采其苦) 즐거운 반수 물가에서 미나리를 가베이 캔다!’이란 구절이 있는데 이를 통해 중국의 춘추시대에 이미 작물화되어 길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반수는 태학을 감싸 도는 물로서 반수에서 미나리를 캔다는 것은 태학에서 인재를 발굴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조선의 성균관을 감싸 도는 개천도 반수로 불렸으며 반궁(泮宮)은 성균관의 별칭으로 쓰였다. 이어 미나리를 캔다는 의미의 채근(采

芹)은 인재를 발굴한다는 의미로 쓰였는데 그 근원이 여기에 있는 듯하다.

또 신라 후대의 최치원이 지은 ‘계원필경’에 변변치 않지만, 정성 담긴 선물의 의미로 미나리가 등장하고 ‘고려사’ 열전 가운데 임연의 전기인 ‘반역임연조’에 ‘근전(芹田)’이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미나리가 아시아 전역에서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길러졌음을 알 수 있다.

미나리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고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을 위해 꾸준히 섭취하면 좋은 채소다. 나물로 무쳐 먹거나 김치로 담가 먹기도 하지만 주로 비린내를 없애거나 향을 내야 하는 요리에 쓰인다. 한국형 허브 식물로 이용됐다. 워낙 오래전부터 미나리를 먹어왔기에 미나리에서 나는 강한 향을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동남아 요리 속 고수, 이탈리아 파슬리와 같은 역할인 셈이다.

미나리는 논과 습지에서 자란다. 또 밭에서도 자랄 수 있다. 미나리를 물미나리와 밭미나리로 나눠서 부르는 것도 재배 장소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미나리를 논에서 재배하려면 수심이 50cm 이상으로 유지돼야 하고 수확할 때도 물에 들어가야 하기에 작업이 까다로워 요즘은 밭에서 재배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이용하고 있다. 논에서 자라고 밭에서 쉽게 수확하는 방식을 찾았는데 겨울철 대량생산하는 미나리 대부분 이 방식을 쓰고 있다.

상전벽해라고 할까, 요즘은 미나리짱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미나리짱이 개발하기에 편한 땅인지라 밭일을 짓고, 도로를 내면서 점차 사라지더니 이제 도심 외곽으로 밀려지고 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몸에 좋은 미나리를 먹지 않을 것도 아니고, 휴지기 논을 활용해 대량으로 겨울철 미나리를 생산하던 미나리짱의 의미는 달라질 일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미나리가 자라기 좋고 식물의 보고라고 할 습지가 점점 사라진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bigkim@kwangju.co.kr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10억 달러 수출 목표” 전남지역 농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내년 10억 달러 수출 달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28일 무안군 남악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전남지역 농수산 수출기업, 수출 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전남도 제공>

어획량 줄고 가격 상승... ‘국민 생선’ 고등어 품귀 현상

고등어 생산량 전년 동월비 61.5%↓...소매가 전년 대비 10.5%↑

지난달 우리나라 밥상에서 ‘국민 생선’으로 꼽히는 고등어와 오징어 생산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고등어 생산량은 6993 t으로 전년 동월과 평년 대비 각각 61.5%, 45.3% 줄었다. 특히 소비자 수요가 많은 중·대형 고등어는 올 1~10월 누적 어획 비중이 4.6%를 기록해 전년 동기(12.9%)와 평년(20.5%)에 크게 못 미쳤다. 고등어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소매가는 크게 뛰

었다. 지난달 고등어 소매가는 1kg 당 1만 2131원으로 전년 대비 10.5% 비쌌다.

오징어 역시 생산량은 급락하고, 소매가는 상승했다. 지난달 연근해산 오징어 생산량은 전년 동월에 견줘 21.8% 줄어든 926 t을 기록했다. 이는 평년보다 84.1% 줄어든 수준이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연근해산과 원양산 반입량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 오징어 생산량이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오징어 소매가는 1kg 당 2만 3187원으로 전년과

평년에 비해 19.8%, 24.6%씩 상승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고등어와 오징어를 비롯한 수산물 생산량이 전반적인 줄어든 원인으로 추측 연휴 및 기상 악화에 따른 조업 감소를 꼽았다.

고등어는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장기적 어획량이 줄어들었고, 노르웨이 정부가 자국의 고등어 어획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시행하면서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물량도 축소됐다.

오징어는 7~9월 서해산 물량 증가로 어획량이 소폭 개선됐지만, 서해 오징어잡이 종료 후 다시 어획이 악화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식품부, 과수기후변화 대응 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28일 ‘과수기후변화 대응 포럼’을 열고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과수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8개 시도, 각 지역 농업기술원, 2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한국사과연합회, 한국과수협회 등 약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을 본격화해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며, 내년부터는 대상 품목 확대, 신청 기준 완화 등으로 2030년까지 100개소(2000ha)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수입안정보험의 적용 품목과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원예농산물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기후변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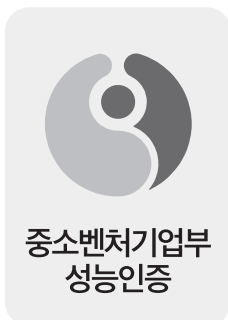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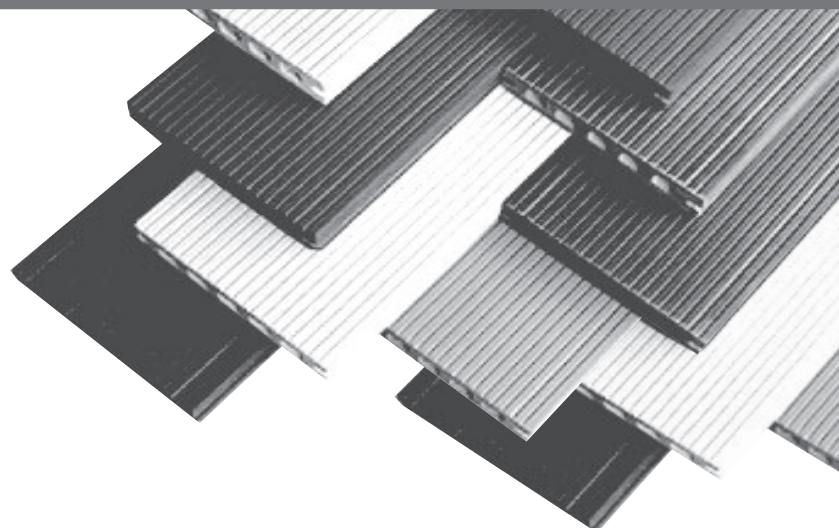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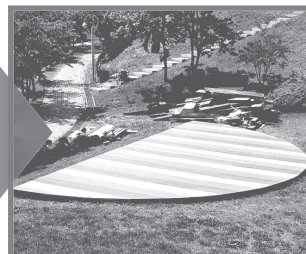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